

# 마늘 가격 고공행진 주부 '한숨'

### 지난해보다 한접 당 7,000~1만5,000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 오름세 예상

주부 김모씨(60)은 지난 19일 마늘을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가 시세 가격에 혀를 내둘렀다. 김장대피와 주요 양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늘을 구입하려 나섰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장마철인 우기 이전에 마늘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이날 가격을 보고 포기했다"며 "올해 마늘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처럼 올랐을 줄은 몰랐다"면서 주부로서 가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걱정했다.

올해 마늘 값이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 가격정보(KAMS))에 따르면 마늘 도매시장 가격대는 난지형 1kg 상품 기준 6월 둘째 주(7~10일) 평균 6,3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676원, 평년

의 3,597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2만7,88ha이다. 또 작황은 지난해보다 10% 남짓 늘어난 20만2,000톤 안팎에 달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측했다.

하지만 마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전주 모래네시장은 햇마늘 한접(100개)당 가격이 중하품 3만 6,000원~4만 원, 상품 4만5,000원~5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접 당 7,000~1만5,000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서산 육쪽 마늘과 의성 마늘의 경우는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마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 오름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상인은 "중간유통업자들이 마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물량 출하를 미루는 것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서 "마늘 가격대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수입산 마늘로 선회할 수도 있다. 결국 마늘 가격이 떨어져 농가만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여름에 어울리는 도자기’**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도자기 사옥에서 모델들이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의 식기로 구성된 ‘시원한 여름 테이블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 이스타항공, 50여명 신입 승무원 모집

이스타항공(대표 김성식)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신입승무원을 모집한다.

이스타항공은 총50여명의 객실인턴승무원을 6월 28일까지 선발한다. 이번 공개 채용에는 일반전형 외에 다문화가정, 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출신 특별전형으로 일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은 동남아, 중국 등 국제선 취항 확대에 인한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해 진행되며, 보훈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출신 특별전형은 어려운 환경의 지원자들의 채용을 통한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진행한다.

공통 지원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기술자격으로 기내안전 수행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공인어학점수 기준을 넘겨야 하며, 어학능력 우수자 및 개인 특기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와 세부 모집전형은 이스타항공 리쿠르트 홈페이지(<https://recruiteastarjet.com>)에서 확인 및 접수 가능하며, 6월28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후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훈련 진행을 위해 1차, 2차로 나누어 객실인턴승무원으로 훈련기에 입사한 후 인턴 및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신광영기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수시 시행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수시 시행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은 3월과 8월 연 2회 구분 시행했었다. 하지만 최근 R&D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기업 지원 개편에 따라 사업 시행주기를 수시 시행으로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분야는 기술의 과잉성 및 공공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분야이며, 최

대 1년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기술료는 면제한다.

도내 중소기업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온라인 시스템([www.smtch.go.kr](http://www.smtch.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시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신청·접수분야 정부출연금(32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활용한 공정기술 업체를 말한다. /신광영기자

##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자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 확대 추진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자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역 내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올해는 1.0배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단지내 보육시설에만 연간 임대료 1,000여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지원했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통해 무선중계기 설치임대료, 전기검침 수입, 재활용품 수입 등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향후 관리비 연체료 수입과 한국전력 전기검침 대행수

익, 광고수익, 재활용품 수익 등 이익 잉여금과 접수입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 입주인들이 관리비 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우선 올해 관리사무소 관리비 차감예산을 지난해 5.168만원보다 1.0배 증액된 8.531만 원을 책정하고 향후 단지별 이익잉여금을 활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녹색에너지사업에 먼저 참여한 혁신에코 2단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전 단지가 참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임차인대표 및 관리업체를 통한 입주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와 관련된 제언에 대해 정책수립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감안, 입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관리비 줄이기"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는 좀 더 다각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강구, 이를 확대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혜택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 전북 중등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모집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정원찬)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중등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16 전북 중등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6월20일~7월1일까지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대상은 전라북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8월 31일부터 9월8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두바이, 입만 도하를 방문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 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라북도 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jtrade.jon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지원단(063-210-6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휴가철 앞두고 물놀이 용품 등 판매 늘어

### 마켓, 평균 66% 증가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용품, 카메라, 여행·숙박 관련 상품의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 비용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소비자층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관련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마켓에 따르면 최근 2주(6월 6~19일) 동안 물놀이 용품, 숙박 상품 등의 판매가 평균 6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아쿠아슈즈(156%), 워터파크·스파(119%)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뒤를 이어 수영 용품(89%), 아동수영복(72%), 국내 호텔·레저타운(77%)의 인기가 높았다.

육선에서도 같은 기간 물놀이용품, 래시가드·서핑수트 등 휴가철 관련 용품의 인기가 향상됐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도 휴가철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했다. 물놀이 용품의 경우 전년 대비 138%, 여행·숙박의 경우 32%, 카메라의 경우 31% 매출이 늘었다.

여행상품 판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는 '제주도', 해외

는 '보라카이', '코타키나발루'의 인기가 높았다.

쿠팡은 최근 한 달간 6~8월 출발 여행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는 '제주도' 해외는 '보라카이'가 인기 여행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여행상품 판매량 중 제주도 상품은 전체 약 40%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해외 인기 여행지로는 하얀 해변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보라카이가 1위를 차지했다. /인진수기자

## 전북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채용 콘서트 개최

### 오늘, 채용요강 등 제공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1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2016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선했다.

전북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의 올해 고졸 직원 채용요강 고졸자 공기업 취업사례, 모의면접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해 채용콘서트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신보, 사회적기업 지원 등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20일 (재)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현섭), (사)함께민드는세상(이사장 김성수), 오픈트레이드(주)(대표이사 고용기), (주)오마이컴퍼니(대표이사 성진경)와 사회적기업자 지원 및 클라우드펀딩 지원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사회적기업 등에 금융·비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연계, 정보공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신보는 협약기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 자금 대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5% 고정보증료율로,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오픈트레이드(주)와 (주)오마이컴퍼니와 협약을 통해 자금조달의 루트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